WEBVTT

00:00:10.670 --> 00:00:12.432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김태동 선생님입니다.

00:00:12.592 --> 00:00:15.223
오늘 이 시간에는 유형
연습 두 번째인데요.

00:00:15.323 --> 00:00:17.203
시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.

00:00:17.303 --> 00:00:21.117
운문에서는 당연히 시어를
어떻게 해석을 하느냐,

00:00:21.217 --> 00:00:23.335
감상하느냐, 이게 가장 어렵죠.

00:00:23.435 --> 00:00:27.537
시어를 감상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
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
00:00:27.637 --> 00:00:32.925
어떤 거냐면 시어를 해석할
때는 구체적인 시어가

00:00:33.025 --> 00:00:36.523
어떻게 추상화되느냐, 이
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.

00:00:36.623 --> 00:00:39.082
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

00:00:39.182 --> 00:00:41.502
하늘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?

00:00:41.602 --> 00:00:43.123
몇 가지 질문해볼게요.

00:00:43.223 --> 00:00:47.504
하늘 하면 구름, 비
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

00:00:47.604 --> 00:00:49.885
너무 1차원적인
대답이고, 초딩이고.

00:00:49.985 --> 00:00:53.883
하늘 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상,
꿈, 동경 이런 것들이

00:00:53.983 --> 00:00:56.768
바로 시어의 상징적 의미로
해석이 되는 거죠.

00:00:56.868 --> 00:00:58.247
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.

00:00:58.347 --> 00:00:59.672
빨간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

00:00:59.772 --> 00:01:03.654
열정, 정열, 분노
이런 것들이 떠오르죠.

00:01:03.754 --> 00:01:05.964
이렇게 추상화적인
이미지로 가는 거예요.

00:01:06.064 --> 00:01:08.188
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죠?

00:01:08.288 --> 00:01:09.782
좀 어렵죠?

00:01:09.882 --> 00:01:14.354
소년, 소녀, 순수,
순수함, 어린이다움.

00:01:14.454 --> 00:01:15.798
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.

00:01:15.898 --> 00:01:17.727
유치원 버스 전부 다
노란색이잖아요.

00:01:17.827 --> 00:01:21.080
심지어 유치원 아이들
옷 입는 거 봐도

00:01:21.180 --> 00:01:23.384
체육복 같은 경우도 다 노란색이죠.

00:01:23.484 --> 00:01:25.141
검은색 체육복 입고
다니는 애들 없잖아요.

00:01:25.241 --> 00:01:27.719
그러니까 노란색은 바로
그런 거를 나타내요.

00:01:27.819 --> 00:01:31.200
유치원 반 이름도 마찬가지로
뭐가 있을까요?

00:01:31.300 --> 00:01:33.410
개나리반, 병아리반,
이렇게 노란색이잖아요.

00:01:33.510 --> 00:01:35.315
흑장미반 이런 거
없을 거 아니에요.

00:01:35.415 --> 00:01:39.286
흑장미반에서 검은색 옷 입고 애들이
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.

00:01:39.386 --> 00:01:41.596
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

그 시어가 나오면

00:01:41.696 --> 00:01:45.114
그 시어를 가지고 일반적인
의미를 먼저 찾아요.

00:01:45.214 --> 00:01:47.623
눈이라고 하면 일반적
의미가 차갑잖아요.

00:01:47.723 --> 00:01:50.419
차가우니까 시련, 고통
이렇게 넘어가는 거고.

00:01:50.519 --> 00:01:55.034
눈 하니까 흰색이니까
순수하다, 깨끗하다

00:01:55.134 --> 00:01:56.237
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.

00:01:56.337 --> 00:01:58.104
그렇게 의미를 확장시켜나가는데

00:01:58.204 --> 00:02:01.983
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머릿속에
생각을 못하셔도 됩니다.

00:02:02.083 --> 00:02:03.828
뭐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,

00:02:03.928 --> 00:02:06.662
선택지에서 그거를 보고
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.

00:02:06.762 --> 00:02:10.213
선택지에서 그거를 보고 눈,
여기서는 흰색의 의미로 쓰였어.

00:02:10.313 --> 00:02:11.895
여기서는 깨끗함의 의미로 쓰였어.

00:02:11.995 --> 00:02:13.120
문맥에 따라서.

00:02:13.220 --> 00:02:16.023
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
의미고 순수한 거야.

00:02:16.123 --> 00:02:18.297
우리가 이렇게 파악만 할 수
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

00:02:18.397 --> 00:02:21.175
그러면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

00:02:21.275 --> 00:02:25.083
시어의 의미를 따질 때 첫 번째는
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건데요.

00:02:25.183 --> 00:02:28.746

함축적 의미는 어떤 단어가
가리키는 대상으로부터

00:02:28.846 --> 00:02:31.987
받는 느낌이나 연상되는 의미를
함축적 의미라고 한다.

00:02:32.087 --> 00:02:35.022
한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하나가
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.

00:02:35.122 --> 00:02:39.007
예를 들어서 황금의 꽃같이 굳고
빛나던 옛 맹세는, 이라고 하면

00:02:39.107 --> 00:02:44.720
여기서 황금이라는 것은
반드시 돈의 값어치가 있는

00:02:44.820 --> 00:02:47.076
이런 의미로만 해석되는
거는 아니죠.

00:02:47.176 --> 00:02:50.936
변하지 않는 아름다움,
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.

00:02:51.036 --> 00:02:54.095
당신은 의가 무거웁고 황금이
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.

00:02:54.195 --> 00:02:56.738
그러면 황금이라는 것은
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

00:02:56.838 --> 00:02:58.112
여기서는 부정적입니다.

00:02:58.212 --> 00:03:00.320
의는 무거운데 황금은
가볍다 그랬으니까

00:03:00.420 --> 00:03:02.311
여기서는 세속적 가치를
의미하는 거죠.

00:03:02.411 --> 00:03:06.147
똑같은 단어지만 문맥에서 그
시에서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거

00:03:06.247 --> 00:03:08.086
확인하면 되겠습니다.

00:03:08.186 --> 00:03:12.682
비유적 의미는 함축적 의미와 크게
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

00:03:12.782 --> 00:03:15.368
마지막에 배울 상징적 의미라는 것도

00:03:15.468 --> 00:03:20.179

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비유와 상징은
거의 구분없이 사용을 합니다.

00:03:20.279 --> 00:03:22.731
비유적 의미를 보면
사물이나 현상 등을

00:03:22.831 --> 00:03:25.016
보조 관념으로 끌어들여서
표현하려는 대상을

00:03:25.116 --> 00:03:30.138
보다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
방법을 비유라고 하는데.

00:03:30.238 --> 00:03:33.661
이때 비유된 말이 갖는
의미를 비유의미라고 한다.

00:03:33.761 --> 00:03:36.804
예를 들어서 이것은
소리 없는 아우성이다.

00:03:36.904 --> 00:03:38.509
뭔지 잘 모르겠죠? 뭐일까요?

00:03:38.609 --> 00:03:39.782
푸른 해원을 향하여,

00:03:39.882 --> 00:03:41.217
푸른, 먼 바다라는 뜻이거든.

00:03:41.317 --> 00:03:43.347
먼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
영원한 노스탤지어.

00:03:43.447 --> 00:03:44.529
향수라는 뜻입니다.

00:03:44.629 --> 00:03:46.100
노스탤지어의 손수건입니다.

00:03:46.200 --> 00:03:48.173
이 2개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

00:03:48.273 --> 00:03:51.059
깃발을 비유적으로
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

00:03:51.159 --> 00:03:54.125
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
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.

00:03:54.225 --> 00:03:55.079
괜찮아요.

00:03:55.179 --> 00:03:57.030
상징적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.

00:03:57.130 --> 00:03:58.752
사물이나 현상에 특정한

의미를 결부시켜

00:03:58.852 --> 00:04:00.587
표현하는 방식을 상징이라고 하며

00:04:00.687 --> 00:04:03.140
상징어가 갖는 의미를
상징적 의미라고 한다.

00:04:03.240 --> 00:04:07.271
상징은 비유와 달리 겉으로 드러난
사물과 결합된 의미 사이에

00:04:07.371 --> 00:04:09.210
유사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.

00:04:09.310 --> 00:04:11.413
그러면 해야 솟아라,
해야 솟아라 할 때

00:04:11.513 --> 00:04:14.706
그 해라는 것은 광복,
독립을 뜻하는 거거든요.

00:04:14.806 --> 00:04:18.497
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
해라는 것과 광복이라는 게

00:04:18.597 --> 00:04:20.058
의미의 연관성이 없잖아요.

00:04:20.158 --> 00:04:23.820
그런데도 2개가 연결되면
그거를 상징이라고 하는데

00:04:23.920 --> 00:04:26.231
수능에서는 구별하지는 않습니다.

00:04:26.331 --> 00:04:27.154
여기 나오죠.

00:04:27.254 --> 00:04:28.797
해야 솟아라, 해야 솟아라.

00:04:28.897 --> 00:04:30.765
말갛게 씻은 얼굴운 해야 솟아라.

00:04:30.865 --> 00:04:32.797
산 너머 산 너머서
어둠을 살라 먹고

00:04:32.897 --> 00:04:35.385
산 너머서 밤새도록
어둠을 살라 먹고,

00:04:35.485 --> 00:04:37.638
이글이글 애띤 얼굴
고운 해야 솟아라.

00:04:37.738 --> 00:04:42.119
해는 조국 광복을 의미하며 어둠은

식민 통치 일제를 상징한다.

00:04:42.219 --> 00:04:45.000
이거는 실제로 어둠과 해라는 것이

00:04:45.100 --> 00:04:49.451
일제와 조국 광복이라는 것과 사실
전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.

00:04:49.551 --> 00:04:52.838
그래도 이렇게 연결되는
것은 상징이라고 합니다.

00:04:52.938 --> 00:04:55.687
함축적 의미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

00:04:55.787 --> 00:04:56.914
아시겠죠?

00:04:57.014 --> 00:04:59.039
그러면 시어의 특징을 보면

00:04:59.139 --> 00:05:01.192
시어는 함축성을 띠고 있어요.

00:05:01.292 --> 00:05:04.555
사전에 풀이된 뜻과는 달리
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

00:05:04.655 --> 00:05:05.909
함축성이라고 한다.

00:05:06.009 --> 00:05:09.878
다의성, 풍부한 정서를 전달하기
위해 일대다의 관계를 추구한다.

00:05:09.978 --> 00:05:13.569
아까 해라는 게 광복도
될 수 있지만

00:05:13.669 --> 00:05:16.371
자유, 희망, 미래 이런
의미도 가능하잖아요.

00:05:16.471 --> 00:05:18.606
일대다의 의미입니다.

00:05:18.706 --> 00:05:21.116
기분이나 분위기 등 정서적
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

00:05:21.216 --> 00:05:23.000
환기성이라고 이야기하죠.

00:05:23.100 --> 00:05:24.570
그다음 볼까요?

00:05:24.670 --> 00:05:27.519
시어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

00:05:27.619 --> 00:05:30.805

시어의 이미지는 우선
어떤 단어를 대했을 때

00:05:30.905 --> 00:05:33.742
머릿속에 환기되는 이미지를
심상이라고 합니다.

00:05:33.842 --> 00:05:36.692
시에서는 주로 미묘한 정서나
추상적인 사상 등을

00:05:36.792 --> 00:05:39.339
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
표현하는데 따라서

00:05:39.439 --> 00:05:41.001
시어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지

00:05:41.101 --> 00:05:44.466
각 이미지의 기능과 성격, 효과를
무엇인지 파악해보자고 했는데.

00:05:44.566 --> 00:05:48.246
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,
우선 볼게요.

00:05:48.346 --> 00:05:49.952
봄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?

00:05:50.052 --> 00:05:54.258
봄 하면 따뜻하다, 부드럽다,
생명력이 넘친다.

00:05:54.358 --> 00:05:55.599
이런 이미지죠.

00:05:55.699 --> 00:05:57.265
파릇한 새싹, 아지랑이,
흩날리는 벚꽃.

00:05:57.365 --> 00:06:00.241
파릇한 새싹, 아지랑이,
흩날리는 벚꽃으로 드러내면

00:06:00.341 --> 00:06:02.086
이미지가 된다 그랬는데 보세요.

00:06:02.186 --> 00:06:04.636
이미지라면 두 가지를
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06:04.736 --> 00:06:06.678
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냐면

00:06:06.778 --> 00:06:09.641
감각적 이미지를 알고 있거든요.

00:06:09.741 --> 00:06:13.109
시각, 청각, 후각, 촉각, 미각,
공감각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.

00:06:13.209 --> 00:06:17.586
그거 말고도 다음 시어 중에서
이미지가 다른 하나는? 이라고 하면

00:06:17.686 --> 00:06:19.078
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.

00:06:19.178 --> 00:06:20.590
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.

00:06:20.690 --> 00:06:21.867
예를 들면 이런 거죠.

00:06:21.967 --> 00:06:23.320
얘들아, 선생님 이미지가 어때요?

00:06:23.420 --> 00:06:24.177
이렇게 물어보죠.

00:06:24.277 --> 00:06:27.243
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
있을 거 아니에요.

00:06:27.343 --> 00:06:30.729
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
중에 코코몽 이야기도 들어봤고.

00:06:30.829 --> 00:06:33.656
그다음에 강아지똥인가,
그것도 들어봤는데.

00:06:33.756 --> 00:06:35.586
이거는 선생님의 이미지예요.

00:06:35.686 --> 00:06:37.979
선생님의 이미지가
어떠니, 라고 했을 때

00:06:38.079 --> 00:06:41.008
후각적이에요, 청각적이에요,
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.

00:06:41.108 --> 00:06:44.978
그러면 이미지라는
것이 상징적 이미지.

00:06:45.078 --> 00:06:47.038
다시 말하면 함축적
이미지라는 게 있고

00:06:47.138 --> 00:06:54.702
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적인
이미지라는 게 있어요.

00:06:54.802 --> 00:06:58.020
함축적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
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

00:06:58.120 --> 00:06:59.921
선생님 느낌이 어떠니?
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

00:07:00.021 --> 00:07:01.223
뭐를 찾는 거예요?

00:07:01.323 --> 00:07:03.958
정서가 어떠니?
이거랑 똑같은 거죠.

00:07:04.058 --> 00:07:07.879
넘어갈게요.

00:07:07.979 --> 00:07:11.297
심상이라면 총 6개가 나오는데요.

00:07:11.397 --> 00:07:12.221
어렵지 않아요.

00:07:12.321 --> 00:07:13.995
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.

00:07:14.095 --> 00:07:16.700
시각적인 심상은 눈으로
보는 것이고.

00:07:16.800 --> 00:07:20.231
그다음에 우물 속에는 푸른 하늘
조각이 떨어져 있는 윤사월.

00:07:20.331 --> 00:07:22.420
이런 것들이 시각적인데
어렵지 않습니다.

00:07:22.520 --> 00:07:24.826
청각적 이미지는 소리를
떠올리는 거고요.

00:07:24.926 --> 00:07:27.504
참깨처럼 솨와솨와 쏟아지는 것들이.

00:07:27.604 --> 00:07:29.435
솨와솨와, 이게 바로 음성 상징어.

00:07:29.535 --> 00:07:30.537
즉 의성어잖아요.

00:07:30.637 --> 00:07:32.047
후각적인 거는 냄새.

00:07:32.147 --> 00:07:34.301
매화 향기, 이런 단어를
통해 알 수 있겠고.

00:07:34.401 --> 00:07:36.751
미각적인 것은 혀를
통해 느끼는 맛입니다.

00:07:36.851 --> 00:07:38.622
소금보다 짜다는 인생.

00:07:38.722 --> 00:07:40.924
촉각은 피부 감각으로

느낄 수 있는 겁니다.

00:07:41.024 --> 00:07:43.434
내 볼에 화 닿던 네
입술의 뜨거움.

00:07:43.534 --> 00:07:44.833
이것도 촉각으로 느낄
수 있는 거죠.

00:07:44.933 --> 00:07:47.653
공감각은 둘 이상의 감각이
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

00:07:47.753 --> 00:07:49.733
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.

00:07:49.833 --> 00:07:51.726
전이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뜻입니다.

00:07:51.826 --> 00:07:52.719
무슨 뜻이냐?

00:07:52.819 --> 00:07:54.735
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예요.

00:07:54.835 --> 00:07:56.723
여러분, 종소리는 절대
푸를 수 없잖아요.

00:07:56.823 --> 00:08:03.055
종소리라는 청각을 푸른색의
이미지로 만든 거니까

00:08:03.155 --> 00:08:04.896
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.

00:08:04.996 --> 00:08:06.736
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.

00:08:06.836 --> 00:08:08.408
새파란 초생달은 시각이죠?

00:08:08.508 --> 00:08:10.236
시리다, 촉각화된 겁니다.

00:08:10.336 --> 00:08:12.768
매운 계절의 채찍에
갈겨, 라고 했으니까

00:08:12.868 --> 00:08:16.229
채찍이라는 것이 촉각인데

00:08:16.329 --> 00:08:22.057
그 촉각을 매운 계절에
채찍이라고 했으니까

00:08:22.157 --> 00:08:23.796
미각으로 표현한 거죠.

00:08:23.896 --> 00:08:26.261

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각입니다.

00:08:26.361 --> 00:08:31.341
시에서 한 단어는 하나의 고유한 지시적
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.

00:08:31.441 --> 00:08:33.501
X죠.

00:08:33.601 --> 00:08:38.025
하나가 아니라 일대다 대응, 다의성을
띤다 그랬으니까 X가 됩니다.

00:08:38.125 --> 00:08:42.324
시어의 음악성은 주로 심상을
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.

00:08:42.424 --> 00:08:44.607
음악성은 운율을 통해 형성됩니다.

00:08:44.707 --> 00:08:48.890
음악성이 아니라 미술성,
회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

00:08:48.990 --> 00:08:52.006
회화성은 심상을 통해서
드러나는 거죠.

00:08:52.106 --> 00:08:54.167
그다음에 넘어가볼까요?

00:08:54.267 --> 00:08:55.593
다음 시를 읽고 괄호 안에
알맞은 말을 쓰시오.

00:08:55.693 --> 00:08:58.435
내 마음은 촛불이요, 그대
저 문을 닫아 주오.

00:08:58.535 --> 00:09:00.887
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,

00:09:00.987 --> 00:09:02.882
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
남김없이 타오리다.

00:09:02.982 --> 00:09:04.936
그러면 여기서 촛불의 이미지는

00:09:05.036 --> 00:09:07.691
그대를 향한 화자의
무엇을 뜻합니까?

00:09:07.791 --> 00:09:09.515
사랑을 뜻하는 거겠죠.

00:09:09.615 --> 00:09:12.203
정답은 사랑이라는 말이
들어가면 되겠네요.

00:09:12.303 --> 00:09:13.753

유형 연습 보겠습니다.

00:09:13.853 --> 00:09:16.627
시어의 상징적 의미, 이런
것들을 살펴볼 텐데.

00:09:16.727 --> 00:09:18.559
문제를 먼저 가볼게요.

00:09:18.659 --> 00:09:21.596
문제 보면 1번, 위 글의
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9:21.696 --> 00:09:23.209
뭐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?

00:09:23.309 --> 00:09:25.234
표현상의 특징을 찾으라는 뜻입니다.

00:09:25.334 --> 00:09:27.445
표현상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

00:09:27.545 --> 00:09:29.373
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

00:09:29.473 --> 00:09:32.652
2번 보면, A, B에 대한
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.

00:09:32.752 --> 00:09:36.935
이게 뭐냐면 A, B에 대한 내용이
부분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.

00:09:37.035 --> 00:09:41.625
부분, 부분에 대한 시어의 상징적
의미를 찾아보라는 뜻이겠죠.

00:09:41.725 --> 00:09:46.574
3번은 다음 활동 a~e에 들어갈
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.

00:09:46.674 --> 00:09:48.822
이런 거예요, 보세요.

00:09:48.922 --> 00:09:50.558
이게 시어의 의미를 찾는 건데

00:09:50.658 --> 00:09:52.404
활동1을 보니까 갈대야.

00:09:52.504 --> 00:09:55.552
흔들리는 존재니까 A와
같은 의미가 있어.

00:09:55.652 --> 00:09:57.243
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.

00:09:57.343 --> 00:09:59.233
하늘이야, 초월적인 공간이야.

00:09:59.333 --> 00:10:02.838

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? 이렇게
파악을 해보라는 뜻입니다.

00:10:02.938 --> 00:10:06.819
그러면 이 시를 한번
감상을 해볼게요.

00:10:06.919 --> 00:10:09.519
제목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.

00:10:09.619 --> 00:10:13.604
여기서 상했다는 것은 음식이
상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죠.

00:10:13.704 --> 00:10:16.808
여기서 상한 영혼은 상처받은 영혼,

00:10:16.908 --> 00:10:19.684
이런 의미가 훨씬 더
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네요.

00:10:19.784 --> 00:10:21.734
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.

00:10:21.834 --> 00:10:24.898
상한 갈대라도, 상처받은 갈대라도

00:10:24.998 --> 00:10:28.326
하늘 아래선 한 계절
넉넉히 흔들리거니.

00:10:28.426 --> 00:10:32.420
원래 갈대는 넉넉히
흔들리는 존재니까

00:10:32.520 --> 00:10:37.772
아무리 상처 입더라도 본래의
모습은 바뀌지 않는다.

00:10:37.872 --> 00:10:40.505
이런 의미가 나오면 적절하겠죠.

00:10:40.605 --> 00:10:42.128
뿌리 깊으면야.

00:10:42.228 --> 00:10:44.952
뿌리만 깊으면 밑둥이 잘리어도

00:10:45.052 --> 00:10:47.890
밑 부분이 잘려도 새순은 돋는대요.

00:10:47.990 --> 00:10:51.533
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.

00:10:51.633 --> 00:10:57.625
상한 갈대라도, 상처 입었어요.

00:10:57.725 --> 00:11:00.076
상한 갈대라도 뭐만 깊으면?

00:11:00.176 --> 00:11:01.723

뿌리만 깊으면.

00:11:10.983 --> 00:11:16.174
뿌리만 깊으면 밑둥이 잘리어도.

00:11:16.274 --> 00:11:20.815
밑둥이 잘려있어도 뭐가 돋는다?

00:11:20.915 --> 00:11:22.406
새순이 돋는다.

00:11:22.506 --> 00:11:25.465
아무리 상처받은
존재라도 뿌리만 깊다면

00:11:25.565 --> 00:11:28.775
이런 조건만 된다면 아무리
어떤 시련이 있더라도

00:11:28.875 --> 00:11:32.136
밑둥이 잘리는 시련이
있더라도 새순은 돋는다.

00:11:32.236 --> 00:11:34.227
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?

00:11:34.327 --> 00:11:37.984
새순이 돋는다는 것은 새로운
희망이 있을 것이다.

00:11:38.084 --> 00:11:40.126
밑둥이 잘린다는 이야기는 시련이죠.

00:11:40.226 --> 00:11:41.876
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는 뭘까요?

00:11:41.976 --> 00:11:44.386
어떤 의지만 가질 수 있다면

00:11:44.486 --> 00:11:49.125
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아무리
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

00:11:49.225 --> 00:11:52.558
의지만 깊다면 이런 시련이 있더라도

00:11:52.658 --> 00:11:54.765
이런 희망을 가질 수
있다는 뜻이에요.

00:11:54.865 --> 00:12:00.693
그러면 상한 갈대는 상처받은 인간의
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닐까요?

00:12:00.793 --> 00:12:03.789
결국 갈대에 대해서
시를 쓰는 게 아니고

00:12:03.889 --> 00:12:06.206
인간의 삶의 모습을
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요.

00:12:06.306 --> 00:12:09.753
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

00:12:09.853 --> 00:12:12.280
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.

00:12:12.380 --> 00:12:14.549
이런 거는 쓰인 표현이 있어요.

00:12:14.649 --> 00:12:16.263
고통에게로 가자, 라고 이야기하면

00:12:16.363 --> 00:12:18.399
이것도 역시 역설법이 가능합니다.

00:12:18.499 --> 00:12:21.866
왜? 고통이라는 거는 누구나
거부하는 거잖아요.

00:12:21.966 --> 00:12:24.543
고통에게로 가자, 이러면 좀
이상합니다, 안 됩니다.

00:12:24.643 --> 00:12:27.764
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
가자, 이랬단 말이야.

00:12:27.864 --> 00:12:30.814
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분히
흔들리며 고통에게 가자.

00:12:30.914 --> 00:12:33.882
그 고통, 시련이라는 거를
담담하게 받아들이자.

00:12:33.982 --> 00:12:35.729
역설적인 표현들 나타나 있어요.

00:12:35.829 --> 00:12:38.274
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.

00:12:38.374 --> 00:12:43.682
그러면 뿌리만 깊다는 조건이
있으면 되는 거죠.

00:12:43.782 --> 00:12:46.738
그런데 뿌리 없는 애들은
어떻게 할 거야.

00:12:46.838 --> 00:12:50.227
뿌리 없이 흔들리는
부평초 잎이라도.

00:12:50.327 --> 00:12:52.996
그러니까 더 열악한
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.

00:12:53.096 --> 00:12:56.758
부평초 잎은, 여러분 개구리밥 알아요?
알죠?

00:12:56.858 --> 00:13:00.734
그 부평초 잎이라도 물속에
떠있는 거 있잖아.

00:13:00.834 --> 00:13:01.970
걔네는 뿌리가 없잖아요.

00:13:02.070 --> 00:13:04.176
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,

00:13:04.276 --> 00:13:07.914
그대신 얘네들은 물이 고이면 꽃은
피거니,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

00:13:08.014 --> 00:13:09.885
이쪽으로 와볼게요.

00:13:09.985 --> 00:13:13.597
그러면 여기에 들어갈
대칭 구조가 나타나는데

00:13:13.697 --> 00:13:16.085
부평초 잎입니다.

00:13:16.185 --> 00:13:19.438
부평초 잎은 뭐가 없어요?
뿌리가 없죠.

00:13:19.538 --> 00:13:24.644
뿌리가 없는 이런 시련이더라도,
뿌리가 없어요.

00:13:24.744 --> 00:13:29.441
그러면 뭐만 있으면? 물이
고이면, 물이 고여있다면

00:13:29.541 --> 00:13:31.932
물만 고이는 상황이라면
뭐가 피어나요?

00:13:32.032 --> 00:13:33.966
꽃은 피어나는 상황이죠.

00:13:34.066 --> 00:13:36.029
그러니까 이게 위,
아래가 대칭 표현으로써

00:13:36.129 --> 00:13:38.611
이런 의미를 다 가질
수 있는 거죠.

00:13:38.711 --> 00:13:39.812
그러니까 보세요.

00:13:39.912 --> 00:13:43.754
언제, 어디서라도, 어떤 상황에서도
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.

00:13:43.854 --> 00:13:46.504
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흘러요.

00:13:46.604 --> 00:13:48.580
그러니까 꽃은 필 수 있는 거죠.

00:13:48.680 --> 00:13:51.883
물이 고이면, 이라고 했으니까
개울은 흐르고 꽃은 피는 거예요.

00:13:51.983 --> 00:13:54.274
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,

00:13:54.374 --> 00:13:56.127
등불도 개울과 똑같은 의미겠죠.

00:13:56.227 --> 00:13:58.553
위, 아래 대칭 구조니까
똑같은 표현입니다.

00:13:58.653 --> 00:14:02.739
등불은 켜지듯 가자
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.

00:14:02.839 --> 00:14:04.623
함께 가자는 거죠.

00:14:04.723 --> 00:14:07.796
고통만 싹싹 피해서 가는
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.

00:14:07.896 --> 00:14:10.215
내가 이겨낼게, 극복할
거야, 이런 거죠.

00:14:10.315 --> 00:14:14.145
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
가랴, 작정하는 게 문제예요.

00:14:14.245 --> 00:14:16.330
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.

00:14:16.430 --> 00:14:19.639
가기로 목숨 걸면
지는 해가 문제랴.

00:14:19.739 --> 00:14:21.492
지는 해는 시련입니다.

00:14:21.592 --> 00:14:27.274
문제랴, 설의적 표현이니까 전혀 문제가
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.

00:14:27.374 --> 00:14:33.358
가기로 목숨 걸면 전혀 문제될
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14:33.458 --> 00:14:36.374
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
해가 문제겠느냐.

00:14:36.474 --> 00:14:41.438
지는 해가 전혀 문제가

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

00:14:41.538 --> 00:14:43.067
그다음 볼까요?

00:14:43.167 --> 00:14:46.643
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

00:14:46.743 --> 00:14:50.430
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.

00:14:50.530 --> 00:14:56.554
뿌리 깊은 벌판이라는 것은 어떤
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.

00:14:56.654 --> 00:15:00.473
또는 시련을 이겨낸 상황, 이게
바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죠.

00:15:00.573 --> 00:15:04.340
그러니까 뿌리 깊은 벌판이라는 거를
답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어요.

00:15:04.440 --> 00:15:08.101
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
ㄱ이 문제가 나왔으면

00:15:08.201 --> 00:15:10.790
ㄱ이 어떤 답으로 내가
A로 뭔가 설정을 해놓는다?

00:15:10.890 --> 00:15:13.199
그것과 선택지를 비교하려고 해요.

00:15:13.299 --> 00:15:14.260
절대 아닙니다.

00:15:14.360 --> 00:15:17.789
그것과 선택지를 비교하면 답이 안
돼요, 안 될 수도 있어요.

00:15:17.889 --> 00:15:21.092
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
어떤 답을 만들지 말고

00:15:21.192 --> 00:15:24.441
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
이게 답이 되겠네.

00:15:24.541 --> 00:15:28.383
그래도 되겠네, 라는
개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

00:15:28.483 --> 00:15:30.350
그럴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

00:15:30.450 --> 00:15:32.841
저기는 뭐다, 이렇게
결정지을 필요가 없습니다.

00:15:32.941 --> 00:15:35.793

선택지가 나오면 그것만
보면 됩니다.

00:15:35.893 --> 00:15:40.712
두 팔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바람은
불듯 시련은 어딘가에 있어요.

00:15:40.812 --> 00:15:42.519
바람은 언제나 불어오죠.

00:15:42.619 --> 00:15:45.325
영원한 눈물은 없어,
영원한 비탄은 없어.

00:15:45.425 --> 00:15:48.806
영원한 좌절은 없는 거예요.

00:15:48.906 --> 00:15:50.817
어디든 희망은 있습니다.

00:15:50.917 --> 00:15:53.176
캄캄한 밤이라도, 아주
캄캄한 상황이라도

00:15:53.276 --> 00:15:56.640
하늘 아래에서는 마주 잡을
손 하나 올 거니까.

00:15:56.740 --> 00:15:58.259
그 마주 잡은 손은
어떤 사람일까요?

00:15:58.359 --> 00:16:00.939
동반자도 되겠고 서로 도움을
주는 사람도 되겠죠.

00:16:01.039 --> 00:16:03.830
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
동반자가 있으니까

00:16:03.930 --> 00:16:07.613
혼자 이겨낼 게 아니니까 무조건
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.

00:16:07.713 --> 00:16:09.992
이런 의지를 가지고
있는 내용입니다.

00:16:10.092 --> 00:16:11.219
어렵지 않겠죠.

00:16:11.319 --> 00:16:15.158
그러면 어휘풀이 넘어가고요.

00:16:15.258 --> 00:16:16.818
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16:16.918 --> 00:16:21.380
1연에서 화자는 어떤
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?

00:16:21.480 --> 00:16:25.022
1연 보니까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
가자, 라고 이야기했으니까

00:16:25.122 --> 00:16:26.977
의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

00:16:27.077 --> 00:16:29.837
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
시적 대상의 모습에 따라

00:16:29.937 --> 00:16:32.174
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
00:16:32.274 --> 00:16:34.748
시간이 지나니까 갈대가
부평초가 됐나요?

00:16:34.848 --> 00:16:36.685
아니죠, 정답 X입니다.

00:16:36.785 --> 00:16:38.702
정답은 X.

00:16:38.802 --> 00:16:44.131
1번, 윗글의 특징으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6:44.231 --> 00:16:47.532
정답은 1번이에요.

00:16:47.632 --> 00:16:51.360
대구적 표현를 통해서,
대구법 쓰였죠.

00:16:51.460 --> 00:16:52.487
어디니?

00:16:52.587 --> 00:16:55.942
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듯

00:16:56.042 --> 00:16:59.097
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
켜지듯, 대구법이죠.

00:16:59.197 --> 00:17:02.952
참고로 보충 설명 하나 들어갑니다.

00:17:03.052 --> 00:17:11.668
대구법하고 이거를 좀 구분할게요.

00:17:11.768 --> 00:17:16.780
통사 구조 반복이라는 게 있습니다.

00:17:16.880 --> 00:17:21.016
어떤 게 더 넓은 개념,
포괄적인 개념일까요?

00:17:21.116 --> 00:17:23.010
얘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.

00:17:23.110 --> 00:17:24.270
왜 그러냐? 보자.

00:17:24.370 --> 00:17:26.808
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

00:17:26.908 --> 00:17:30.810
이렇게 나타났을 때 A가
있고 A`가 있어요.

00:17:30.910 --> 00:17:34.459
이거는 통사 구조 반복도 되죠.

00:17:34.559 --> 00:17:37.436
이거는 대구법도 가능합니다.

00:17:37.536 --> 00:17:40.733
통사 구조 반복은 문장
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.

00:17:40.833 --> 00:17:44.444
A가 여기 있고 A'가
여기 밑에 있어요.

00:17:44.544 --> 00:17:47.648
그러면 얘는 대구법이라고
하기는 어렵습니다.

00:17:47.748 --> 00:17:49.886
대칭 구조니까 위,
아래 접혀야 되거든.

00:17:49.986 --> 00:17:52.024
접히면 똑같아야 돼,
데칼코마니처럼.

00:17:52.124 --> 00:17:54.674
그런데 얘는 통사
구조 반복은 됩니다.

00:17:54.774 --> 00:17:57.275
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두면 되겠죠.

00:17:57.375 --> 00:17:59.756
그다음에 계절의 흐름 없어요.

00:17:59.856 --> 00:18:03.035
그다음에 사물의 의인화를
통해, 가능합니다.

00:18:03.135 --> 00:18:04.720
상처 입은 영혼, 가능하죠.

00:18:04.820 --> 00:18:08.109
그러나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죠,
태도 파악이 잘못됐습니다.

00:18:08.209 --> 00:18:10.144
공감각적 심상 안 보이더라고요.

00:18:10.244 --> 00:18:13.158

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하고
있다,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.

00:18:13.258 --> 00:18:14.858
정답은 1번이죠.

00:18:14.958 --> 00:18:16.900
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18:17.000 --> 00:18:19.001
A와 B에 대한 이해로
적절한 것은?

00:18:19.101 --> 00:18:22.814
A는 상한 갈대, B는
부평초 잎이었어요.

00:18:22.914 --> 00:18:26.146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8:26.246 --> 00:18:32.938
밑둥과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,
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

00:18:33.038 --> 00:18:37.687
밑둥이 잘려도, 사실은
밑둥이 잘린 게 문제니까

00:18:37.787 --> 00:18:39.675
밑둥 자체는 긍정적인 거죠.

00:18:39.775 --> 00:18:41.394
동그라미, 세모로 문제 풉니다.

00:18:41.494 --> 00:18:42.840
밑둥은 동그라미죠.

00:18:42.940 --> 00:18:48.025
개울은 실존적 위기,
실존이 뭔지 몰라도 돼.

00:18:48.125 --> 00:18:50.257
위기감은 아무튼 세모일 거 아니야?

00:18:50.357 --> 00:18:52.179
동그라미가 세모로 설명됐어.

00:18:52.279 --> 00:18:53.311
틀린 겁니다.

00:18:53.411 --> 00:18:57.361
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
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

00:18:57.461 --> 00:19:00.403
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며 간다.

00:19:00.503 --> 00:19:05.058
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다는
거니까 충분히 살아가는 거고

00:19:05.158 --> 00:19:08.057
지는 해가 문제랴, 지는
해는 문제될 게 없다.

00:19:08.157 --> 00:19:11.219
지는 해가 원래는
문제되는 상황인데,

00:19:11.319 --> 00:19:13.138
문제 될 게 없다니까
지는 해는 세모죠.

00:19:13.238 --> 00:19:16.501
극한 상황, 그러니까 한
계절이라는 게 애매하죠.

00:19:16.601 --> 00:19:19.179
정답은 X입니다.

00:19:19.279 --> 00:19:22.256
새순은 돋는다, 새순 동그라미네요.

00:19:22.356 --> 00:19:24.094
이 세상 어디나 등불,
동그라미네요.

00:19:24.194 --> 00:19:26.929
고난 극복의 가능성, 고난 극복할
수 있다는 거니까 동그라미.

00:19:27.029 --> 00:19:28.526
정답 3번이죠.

00:19:28.626 --> 00:19:30.396
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.

00:19:30.496 --> 00:19:33.454
현실 부정의 비판적인
어조가 반복되고 있다.

00:19:33.554 --> 00:19:36.628
현실의 부정에 대해서
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.

00:19:36.728 --> 00:19:40.135
비판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
받아들이겠다,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.

00:19:40.235 --> 00:19:41.617
기억하시죠?

00:19:41.717 --> 00:19:44.630
세모, 세모인데 이거를
동그라미, 받아들이자.

00:19:44.730 --> 00:19:47.904
왜?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
가자, 라고 이야기했으니까

00:19:48.004 --> 00:19:49.846
고통을 긍정적으로

받아들이고 있는 거죠.

00:19:49.946 --> 00:19:54.599
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
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.

00:19:54.699 --> 00:19:56.845
절대 아니죠, 오히려 더
적극적이면 적극적이었지

00:19:56.945 --> 00:19:59.236
소극적으로 바뀌는 거 없었습니다.

00:19:59.336 --> 00:20:04.510
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찾을 때는 동그라미,
세모를 치는 게 가장 좋아요.

00:20:04.610 --> 00:20:07.377
3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20:07.477 --> 00:20:11.603
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0:11.703 --> 00:20:13.802
활동 목표는 다양한 의미.

00:20:13.902 --> 00:20:17.629
시상 고려하여 ㄱ과 관련된
어구를 시에서 찾아보자.

00:20:17.729 --> 00:20:19.209
이게 무슨 뜻인가요?

00:20:19.309 --> 00:20:24.389
ㄱ과 관련된 어구를
시에서 찾아 넣어보자.

00:20:24.489 --> 00:20:28.295
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
있는 의미를 적어보자.

00:20:28.395 --> 00:20:32.794
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ㄱ의
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보자.

00:20:32.894 --> 00:20:34.248
이렇게 이야기했죠.

00:20:34.348 --> 00:20:40.219
a~e에 들어갈 말로
해석해보자고 이야기했으니까.

00:20:40.319 --> 00:20:43.045
ㄱ이 뭡니까?

00:20:43.145 --> 00:20:48.068
앞에 뿌리 깊은 벌판이 ㄱ이구나.

00:20:48.168 --> 00:20:51.853
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뿌리
깊은 벌판이라는 것의 의미를

00:20:51.953 --> 00:20:54.860
해석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20:54.960 --> 00:20:57.305
그러면 1번 볼까요?

00:20:57.405 --> 00:20:59.887
적절하지 않은 거를
찾으라고 했으니까.

00:20:59.987 --> 00:21:04.294
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
존재도, 흔들리잖아요 원래.

00:21:04.394 --> 00:21:06.684
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,
뿌리 내릴 수 있죠.

00:21:06.784 --> 00:21:10.308
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ㄱ은
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.

00:21:10.408 --> 00:21:11.479
이거 보세요.

00:21:11.579 --> 00:21:15.451
흔들리는데 뿌리를 내릴 수
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

00:21:15.551 --> 00:21:17.735
굳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

00:21:17.835 --> 00:21:21.064
흔들리는 존재야, 부정적이야.

00:21:21.164 --> 00:21:23.031
시련이 있어, 괴로워.

00:21:23.131 --> 00:21:26.716
그렇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
긍정적 존재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

00:21:26.816 --> 00:21:29.466
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
수 있다, 적절하겠죠.

00:21:29.566 --> 00:21:32.405
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
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

00:21:32.505 --> 00:21:37.312
ㄱ은 초월적인 공간, 왜
초월적 공간이라고 했냐면

00:21:37.412 --> 00:21:40.934
보세요, 하늘이 초월적
공간이라고 했으니까.

00:21:41.034 --> 00:21:43.580
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

현실적인 공간이다.

00:21:43.680 --> 00:21:46.249
하늘 아래서 넉넉히 흔들릴
수 있다고 했으니까

00:21:46.349 --> 00:21:49.543
그 하늘이라는 거는 초월적 공간이고

00:21:49.643 --> 00:21:53.196
뿌리 깊은 벌판이라는
것은 아닌 거잖아요.

00:21:53.296 --> 00:21:56.048
그러니까 대응되는
현실적인 공간이다.

00:21:56.148 --> 00:21:59.309
즉 왜 대응된다고 이야기했냐면
대조되는 것이 아니라

00:21:59.409 --> 00:22:02.436
호응을 한다는 거니까 왜
호응이라고 이야기했냐면

00:22:02.536 --> 00:22:04.728
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이 긍정적이고

00:22:04.828 --> 00:22:08.312
뿌리 깊은 벌판이
긍정적이니까 서로 대응된다.

00:22:08.412 --> 00:22:11.640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
되겠습니까?

00:22:11.740 --> 00:22:14.962
그다음에 3연은 바람은 막을
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

00:22:15.062 --> 00:22:17.825
바람이 뭔데요?
막을 수 없다, 여기 나왔죠.

00:22:17.925 --> 00:22:22.364
ㄱ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
벗어날 수 없는 공간, 틀렸죠.

00:22:22.464 --> 00:22:26.893
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
긍정적인 거야, 부정적인 거야?

00:22:26.993 --> 00:22:28.149
부정적인 거잖아.

00:22:28.249 --> 00:22:31.593
뿌리 깊은 벌판이라고 하면
바람은 막을 수 없다.

00:22:31.693 --> 00:22:33.584
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

00:22:33.684 --> 00:22:36.071
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
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

00:22:36.171 --> 00:22:39.384
그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
있는 공간이다, 이렇게 보셔야죠.

00:22:39.484 --> 00:22:44.123
여기서는 구속을 벗어날
수 없는 운명이다.

00:22:44.223 --> 00:22:46.132
이런 해석이 안 되는 거죠.

00:22:46.232 --> 00:22:49.724
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
상황이, 밤은 부정적이니까.

00:22:49.824 --> 00:22:51.255
닥쳐오는 것을 보면

00:22:51.355 --> 00:22:55.228
ㄱ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
하는 공간이다, 적절합니다.

00:22:55.328 --> 00:22:59.744
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
있는 것을 보면, 만남의 대상이죠.

00:22:59.844 --> 00:23:02.649
ㄱ은 희망이 예비된
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.

00:23:02.749 --> 00:23:06.235
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

00:23:06.335 --> 00:23:09.526
유형 연습 두 번째를 볼게요.

00:23:09.626 --> 00:23:13.753
고전문학 시조가
연시조로 나왔습니다.

00:23:13.853 --> 00:23:17.426
제목이 좀 특이하죠?
방옹시여라는 건데.

00:23:17.526 --> 00:23:24.247
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음이라는
작가의, 방옹이 호라고 합니다.

00:23:24.347 --> 00:23:26.772
방옹의 시를 모아놓았다는 뜻입니다.

00:23:26.872 --> 00:23:29.036
오른쪽에 보니까 1수.

00:23:29.136 --> 00:23:31.208
여러분이 착각하면

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,

00:23:31.308 --> 00:23:35.054
2수에서, 라고 하면
2수가 여기 없어요.

00:23:35.154 --> 00:23:39.010
1수, 8수, 17수,
18수 이렇게 나갑니다.

00:23:39.110 --> 00:23:40.744
1수 이거 조심하셔야죠.

00:23:40.844 --> 00:23:41.872
문제를 한번 볼까요?

00:23:41.972 --> 00:23:42.863
표현상 특징입니다.

00:23:42.963 --> 00:23:47.033
㉮에서는 문답법, 과거 현재
대비, 확인해보면 되겠죠.

00:23:47.133 --> 00:23:51.706
2번, a, b를 고려했을 때 (가)와 (라)에
대한 이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3:51.806 --> 00:23:56.985
(가)~(라)에 대한 이해로
적절한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.

00:23:57.085 --> 00:23:58.643
보기를 먼저 볼까요?

00:23:58.743 --> 00:24:02.230
방옹시여는 선조 사회,
선조 임금이 죽었어요.

00:24:02.330 --> 00:24:05.830
정계에서 밀려난 신음이
은거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

00:24:05.930 --> 00:24:08.127
배경으로 창작한 시
작품을 모아놓은 거야.

00:24:08.227 --> 00:24:12.645
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
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

00:24:12.745 --> 00:24:16.007
예컨대 은자로서의
자족감이나 자긍심.

00:24:16.107 --> 00:24:18.712
a가 뭐죠? 이게 좀
어려운 문제였습니다.

00:24:18.812 --> 00:24:22.568
a는 은자로서의 자족감.

00:24:22.668 --> 00:24:25.840
은자가 뭐예요? 숨어있는
선비라는 뜻입니다.

00:24:25.940 --> 00:24:29.482
자족감이나 자긍심이
나타나 있는 거고.

00:24:29.582 --> 00:24:31.261
이 문제 어려웠던 거로
기억난다, 얘들아.

00:24:31.361 --> 00:24:36.145
자족감과 자긍심이
나타나 있는 거고.

00:24:36.245 --> 00:24:40.376
그다음에 b는 님으로 표상되는
선왕에 대한 그리움,

00:24:40.476 --> 00:24:46.926
님으로 표상되는 임금에 대한
그리움이 나타나있다.

00:24:47.026 --> 00:24:48.230
이렇게 보면 되겠죠.

00:24:48.330 --> 00:24:52.486
이거를 바탕으로 이 부분, 부분을
전부 다 해석해보라는 뜻입니다.

00:24:52.586 --> 00:24:55.286
작품군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

00:24:55.386 --> 00:25:01.560
2번 문제 아주 아주 재미있고
어렵고 좋은 문제입니다.

00:25:01.660 --> 00:25:05.581
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보기에 제시된
이 두 가지 내용으로 바탕으로

00:25:05.681 --> 00:25:10.571
이 1수, 8수, 17수, 18,
19수를 전부 다 해석해보라는 뜻입니다.

00:25:10.671 --> 00:25:11.773
3번을 볼까요?

00:25:11.873 --> 00:25:15.050
보기를 비교해서
감상해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

00:25:15.150 --> 00:25:19.007
(마) 작품에 나와있는 내용하고
보기 작품하고 비교해서

00:25:19.107 --> 00:25:20.790
문제를 풀면 되겠죠.

00:25:20.890 --> 00:25:22.167

가볼게요.

00:25:22.267 --> 00:25:27.866
산촌에 눈이 오니,
산촌은 산 마을이죠.

00:25:27.966 --> 00:25:30.643
돌길이 묻쳐있대요.

00:25:30.743 --> 00:25:34.218
원래 이 돌길은 연결할
수 있는 매개체잖아요.

00:25:34.318 --> 00:25:36.009
이 산길로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.

00:25:36.109 --> 00:25:43.741
그런데 눈 때문에 못 오는 거니까 눈은
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소재입니다.

00:25:43.841 --> 00:25:47.392
시비를 여지 마라,
사립문 열지 마라.

00:25:47.492 --> 00:25:51.267
날 차즈리, 찾을 사람이 뉘
이스리, 누가 있겠느냐.

00:25:51.367 --> 00:25:53.750
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.

00:25:53.850 --> 00:26:01.717
밤듕만 일편명월, 일편명월은 한
조각 달이 벗인가 하노라.

00:26:01.817 --> 00:26:05.783
즉 일편명월만 나의 벗이다,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26:05.883 --> 00:26:07.022
됐습니까?

00:26:07.122 --> 00:26:13.517
어떻게 하냐면 1번 문제, 2번
문제 각각 선택지 보면서 갑시다.

00:26:13.617 --> 00:26:17.888
㉮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,
묻고 답하고 있습니까?

00:26:17.988 --> 00:26:19.648
묻혀있다, 누가 있겠느냐.

00:26:19.748 --> 00:26:23.768
날 찾을 이 누가
있겠느냐, 질문한 건가?

00:26:23.868 --> 00:26:29.119
이거는 일편명월이 그
벗인가 하노라.

00:26:29.219 --> 00:26:30.523
이렇게 이야기했잖아.

00:26:30.623 --> 00:26:33.850
대상과의 문답이 아니라
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죠.

00:26:33.950 --> 00:26:36.296
누가 있겠느냐,
또는 설의법입니다.

00:26:36.396 --> 00:26:38.609
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는 거니까

00:26:38.709 --> 00:26:41.611
1번 선택지 대상과의 문답이라고
하는 게 틀렸습니다.

00:26:41.711 --> 00:26:44.309
착각을 할 수 있게
하는 문제였습니다.

00:26:44.409 --> 00:26:48.930
2번에 1번 보면 눈은
a와 연관된 시어로

00:26:49.030 --> 00:26:51.741
a가 어디 있어요?

00:26:51.841 --> 00:26:58.603
a는 은자와 연관된 시어로
화자의 은거가 밑줄 쳐볼게.

00:26:58.703 --> 00:27:00.773
자발적으로 이루었음을 나타낸다.

00:27:00.873 --> 00:27:02.746
자발적인 거 알 수 없죠.

00:27:02.846 --> 00:27:07.211
왜? 눈 때문에 묻혀 있어서
혼자 은자가 된 거잖아요.

00:27:07.311 --> 00:27:09.789
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죠.

00:27:09.889 --> 00:27:14.856
눈이라고 하는 것이 속세와 단절하게
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

00:27:14.956 --> 00:27:18.823
눈 때문에 묻혀있는 거니까
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.

00:27:18.923 --> 00:27:20.716
밑줄 치고 X 표시할게요.

00:27:20.816 --> 00:27:23.350
그러니까 2번의 1번은 틀렸습니다.

00:27:23.450 --> 00:27:25.394

2번 볼까요?

00:27:25.494 --> 00:27:31.078
섯가래 기나 자르나,
섯가래가 뭐냐면 기둥 있죠?

00:27:31.178 --> 00:27:34.054
대들보라고 하죠.

00:27:34.154 --> 00:27:43.121
대들보 옆에 갈비뼈처럼 이렇게
지붕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.

00:27:43.221 --> 00:27:48.013
섯가래가 기나 자르나,
길든 짧든 상관 없어.

00:27:48.113 --> 00:27:52.706
기동이, 기둥이 기울어지든
틀어졌든 상관 없어요.

00:27:52.806 --> 00:27:55.489
수간모옥, 수간모옥은 초가집입니다.

00:27:55.589 --> 00:27:58.545
작은 줄 웃지 마라,
작다고 비웃지 마라.

00:27:58.645 --> 00:28:03.862
난 만족스럽거든, 자연에 있으니까.

00:28:03.962 --> 00:28:06.712
어즈버, 감탄사입니다.

00:28:06.812 --> 00:28:13.563
만산 나월이, 가득찬 산에 나월은
단어 뜻이 뭐가 나왔습니까?

00:28:13.663 --> 00:28:17.890
만산 나월이, 산에 가득
자란 덩굴 풀에 비친,

00:28:17.990 --> 00:28:19.258
덩굴이라는 뜻이네요?

00:28:19.358 --> 00:28:22.122
만산 나월이 다 내 거신가 하노라.

00:28:22.222 --> 00:28:24.000
무슨 뜻이에요? 자연 친화입니다.

00:28:24.100 --> 00:28:28.837
다 내 거야, 그러니까 그
안에 집을 지어놓은 게

00:28:28.937 --> 00:28:32.339
아주 큰집이 아니어도 상관
없어, 이런 뜻이에요.

00:28:32.439 --> 00:28:37.377
그러면 1번에 2번 보니까

㉰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

00:28:37.477 --> 00:28:39.418
화자의 삶을 암시한다.

00:28:39.518 --> 00:28:41.206
과거, 현재 나오는 거 없잖아요.

00:28:41.306 --> 00:28:43.379
지금 현재 만족스럽다고
이야기하는 거니까.

00:28:43.479 --> 00:28:46.708
2번 보면 수간모옥은
a와 관련이 있다.

00:28:46.808 --> 00:28:48.363
은자와 관련된 거, 맞아요.

00:28:48.463 --> 00:28:53.582
화자의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는데
다 내 거라고 했으니까

00:28:53.682 --> 00:28:55.231
답답한 심정이 아니죠.

00:28:55.331 --> 00:28:58.335
답답한 심정이 아니라 오히려
만족스러운 심정이니까

00:28:58.435 --> 00:29:03.068
정답 2번도 틀렸네요,
2번의 2번도 틀렸습니다.

00:29:03.168 --> 00:29:09.854
그다음 한식 비 온
밤에 봄빗치 다 퍼졌다

00:29:09.954 --> 00:29:15.860
무정한 화류도, 무정하다는
것은 감정 표현을 안 하는

00:29:15.960 --> 00:29:18.303
무심한, 이런 뜻입니다.

00:29:18.403 --> 00:29:20.147
무관심한 이런 뜻이에요.

00:29:20.247 --> 00:29:23.184
화류도 정을 느낄 수 없는 화류,

00:29:23.284 --> 00:29:28.590
꽃과 버드나무도 때를
아라 픠엿거든.

00:29:28.690 --> 00:29:31.064
때를 알아서 피었어,
봄빛이 다 퍼졌고.

00:29:31.164 --> 00:29:34.613
감정이 없는 꽃과

버드나무도 때를 알아서

00:29:34.713 --> 00:29:37.696
봄이라고 생각하는
거니까 다 피었거든.

00:29:37.796 --> 00:29:42.264
엇더타 우리의 님은, 어찌하여
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.

00:29:42.364 --> 00:29:43.857
님이 누구겠습니까? 임금이겠죠?

00:29:43.957 --> 00:29:47.083
아까 보기에는 b가
임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.

00:29:47.183 --> 00:29:50.168
그러면 얘는 임금과 관련된
부분이라고 하는 거를

00:29:50.268 --> 00:29:51.955
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.

00:29:52.055 --> 00:29:57.699
아무튼 1번에 3번을 보면
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서

00:29:57.799 --> 00:29:59.777
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.

00:29:59.877 --> 00:30:00.820
볼까요?

00:30:00.920 --> 00:30:02.953
봄빛이 다 퍼졌다, 경치죠.

00:30:03.053 --> 00:30:06.200
화류가 피었죠, 여기는
당연히 선경이 되겠죠.

00:30:06.300 --> 00:30:08.189
먼저 경치를 봤으니까요.

00:30:08.289 --> 00:30:10.393
님은 아니 오는가, 님은 아니 오는

00:30:10.493 --> 00:30:16.371
외로움 또는 그리움의 심정이 나타나
있으니까 선경후정 가능하네요.

00:30:16.471 --> 00:30:18.366
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3번이고.

00:30:18.466 --> 00:30:20.362
2번의 3번 볼까?

00:30:20.462 --> 00:30:23.546
만산 나월은 이거네요.

00:30:23.646 --> 00:30:26.895

만산 나월은 b와 관련된 시어다.

00:30:26.995 --> 00:30:29.121
b가 임금이잖아요.

00:30:29.221 --> 00:30:30.029
그러니까 이거 틀렸죠.

00:30:30.129 --> 00:30:32.349
b와 관련된 게 아니라
a와 관련된 거잖아.

00:30:32.449 --> 00:30:34.352
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한다.

00:30:34.452 --> 00:30:38.561
여기서 만산 나월이라는 거는
여기서는 바로 자연 친화니까.

00:30:38.661 --> 00:30:41.003
그러니까 2번에 3번도 틀렸고.

00:30:41.103 --> 00:30:42.874
4번을 볼까?

00:30:42.974 --> 00:30:45.121
봄빛은 b와 관련됐다. 왜?

00:30:45.221 --> 00:30:48.146
봄빛은 다 퍼졌는데 님은 안
오니까 b와 관련된 거 맞고요.

00:30:48.246 --> 00:30:50.746
님에 대한 그리움,
4번이 정답이네요.

00:30:50.846 --> 00:30:52.289
됐습니까?

00:30:52.389 --> 00:30:53.702
2번 정답 확인했고요.

00:30:53.802 --> 00:30:56.614
1번 정답도 확인했습니다.

00:30:56.714 --> 00:31:01.674
어젯밤 비 온 후에
석류 꽃이 다 피었다.

00:31:01.774 --> 00:31:04.586
비가 온 다음에 석류
꽃이 다 피었어.

00:31:04.686 --> 00:31:10.739
부용 당반에, 부용 당반은 연꽃이
피어있는 연못가에 수정렴을 거더 두고.

00:31:10.839 --> 00:31:12.187
수정으로 만든 발입니다.

00:31:12.287 --> 00:31:14.796

우리 짜장면 집 들어갈 때
열고 들어가는 발 있죠.

00:31:14.896 --> 00:31:20.583
눌 향한, 누구를 향한 깁흔
시름을 못내 푸러 하노라.

00:31:20.683 --> 00:31:22.805
풀어내려고 하노라, 이런 뜻이야.

00:31:22.905 --> 00:31:25.700
그러면 여기서 이 누구를
향한이라고 했으니까

00:31:25.800 --> 00:31:28.719
이 누구가 바로
누구냐면 임금입니다.

00:31:28.819 --> 00:31:32.422
임금에 대한 그리움이
18수에 또 나왔어요.

00:31:32.522 --> 00:31:38.800
그러면 1번에 4번 보면
㉮에서는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

00:31:38.900 --> 00:31:41.683
심리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였다.

00:31:41.783 --> 00:31:45.798
감정 이입이 있을까요?

00:31:45.898 --> 00:31:55.099
석류꽃이 다 피었는데 얘는
시름을 겪고 있는 거니까

00:31:55.199 --> 00:31:58.358
피어있는 거니까 긍정적인데
얘는 시름 느끼고 있으니까

00:31:58.458 --> 00:32:00.672
감정 이입이라고
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.

00:32:00.772 --> 00:32:03.885
그러니까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.

00:32:03.985 --> 00:32:09.512
그다음에 2번에 5번 보면
부용 당반은 b와 관련됐다.

00:32:09.612 --> 00:32:13.321
눌 향한이니까 b와
관련된 거 맞고요.

00:32:13.421 --> 00:32:16.118
화자가 염모하는 대상과
함께 지낸다.

00:32:16.218 --> 00:32:18.703
말도 안 되죠, 그리워하고

있는 공간이니까.

00:32:18.803 --> 00:32:21.264
그다음 ㈏를 볼까요?

00:32:21.364 --> 00:32:25.783
창밧긔 워셕버셕, 워셕버셕이라는
거는 음성상징어예요.

00:32:25.883 --> 00:32:27.263
소리 흉내내는 말입니다.

00:32:27.363 --> 00:32:30.976
님이신가 이러 보니, 님이
아니실까 일어나 보니까

00:32:31.076 --> 00:32:33.894
혜란 혜경에, 무슨 뜻입니까?

00:32:33.994 --> 00:32:37.282
난초가 자라는 지름길에
낙엽은 무슨 일인가.

00:32:37.382 --> 00:32:40.415
낙엽이 바로 님이라고
착각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.

00:32:40.515 --> 00:32:45.741
어즈버 유한한 간장이,
간과 장이 한계가 있는

00:32:45.841 --> 00:32:48.960
무한대 많은 것이 아니라
몇 개 없는이겠죠.

00:32:49.060 --> 00:32:51.979
간장이, 간과 장이
다 끈칠까 하노라.

00:32:52.079 --> 00:32:53.313
다 끊어질까 하노라.

00:32:53.413 --> 00:32:55.246
너무나 애탄다는 뜻입니다.

00:32:55.346 --> 00:32:56.274
같이 가보죠.

00:32:56.374 --> 00:32:58.180
이거 먼저 봐야 되는구나.

00:32:58.280 --> 00:33:01.778
(가)에서 속세와의 연결 통로를
의미하는 시어 2개를 찾아 쓰시오.

00:33:01.878 --> 00:33:05.456
(가)에서 속세와 연결하는
것은 돌길이 묻혀 있다.

00:33:05.556 --> 00:33:08.460
돌길이 원래 속세와 연결

통로인데 묻혀 있다 그랬으니까.

00:33:08.560 --> 00:33:12.131
시비를 열지 마라,
열면 누군가 오는데

00:33:12.231 --> 00:33:16.777
열지 마라 그랬으니까
시비하고 돌길이겠죠.

00:33:16.877 --> 00:33:19.815
(나)에서 ( )는
안빈낙도의 삶을 상징한다.

00:33:19.915 --> 00:33:23.568
(나)에서 안빈낙도,
수간모옥이겠죠.

00:33:23.668 --> 00:33:27.215
수간모옥은 가난하지만 만족하는
별 볼 일 없는 집이잖아요.

00:33:27.315 --> 00:33:30.604
화자는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면서도
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달파하고 있다.

00:33:30.704 --> 00:33:32.701
동그라미입니다.

00:33:32.801 --> 00:33:34.414
아까 이거 보려고 했었어요.

00:33:34.514 --> 00:33:36.960
가장 적절한 것은?
3번 정답 찾았고요.

00:33:37.060 --> 00:33:38.205
5번 볼까요?

00:33:38.305 --> 00:33:39.915
(마)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

00:33:40.015 --> 00:33:43.030
다른 거 다 봤습니다,
안 봐도 됩니다.

00:33:43.130 --> 00:33:48.975
대상을 의인화하여, 낙엽이
의인화된 것도 없었네요.

00:33:49.075 --> 00:33:50.105
의인화 틀렸고.

00:33:50.205 --> 00:33:52.991
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이라고
이야기하기도 어렵죠.

00:33:53.091 --> 00:33:55.172
이거는 창밖에 소리가 나.

00:33:55.272 --> 00:33:59.375

낙엽이야, 간과 장이
다 끊어질 것 같다.

00:33:59.475 --> 00:34:02.337
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
5번이 틀렸네요.

00:34:02.437 --> 00:34:04.590
2번은 다 해결했고요.

00:34:04.690 --> 00:34:07.050
3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34:07.150 --> 00:34:12.415
3번 문제는 (마)와 보기를 비교하여
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4:12.515 --> 00:34:14.972
보기를 볼까요?

00:34:15.072 --> 00:34:18.757
벽사창이, 아까 앞에서는
창밖에, 이렇게 있는데.

00:34:18.857 --> 00:34:22.561
벽사창, 파란색 창문이
어른어른하거늘

00:34:22.661 --> 00:34:27.250
님만 너겨, 님이라고 여겨 풀쩍
일어나서 뚝딱 나가 보니까

00:34:27.350 --> 00:34:29.639
음성상징어 쓰였죠.

00:34:29.739 --> 00:34:33.891
님은 아니오 명월이 만정한데
달이 뜰에 가득차 있는데

00:34:33.991 --> 00:34:41.584
벽오동 져즌 님해, 벽오동은
푸른 오동나무 젖어 있는 이파리에

00:34:41.684 --> 00:34:47.477
봉황이 내려안자, 봉황은 현실에
있는 새가 아니잖아요.

00:34:47.577 --> 00:34:53.593
봉황이 내려 앉아서 긴 부리를
휘여다가 두 날개에 넣어 놓고.

00:34:53.693 --> 00:34:56.185
긴 부리를 휘여서 날개에
넣어두고 이런 거예요.

00:34:56.285 --> 00:34:57.596
연기 좋죠?

00:34:57.696 --> 00:35:02.496
슬금슬적 깃 다듬난, 깃털입니다.

00:35:02.596 --> 00:35:04.740
깃털을 다듬는 그림자로다.

00:35:04.840 --> 00:35:06.803
앞에 거랑 뭐가 달라졌어요?

00:35:06.903 --> 00:35:08.542
앞에는 낙엽, 현실적인 거죠.

00:35:08.642 --> 00:35:13.432
그런데 여기는 봉황이 날개를 집어넣고
깃털을 다듬는 모습인 것 같다.

00:35:13.532 --> 00:35:17.128
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
내용이 나왔어요.

00:35:17.228 --> 00:35:20.793
모쳐로, 마침 밤일시만졍,
밤이기에 망정이지

00:35:20.893 --> 00:35:24.089
행여 낮이었다면 남 우일 번하여라.

00:35:24.189 --> 00:35:25.971
남들이 비웃을 뻔하였다.

00:35:26.071 --> 00:35:29.074
처음 보는 이 작품을
해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.

00:35:29.174 --> 00:35:30.564
아주 어려웠죠.

00:35:30.664 --> 00:35:31.843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5:31.943 --> 00:35:35.330
(마)의 초장과 (마)의 첫 번째 줄.

00:35:35.430 --> 00:35:37.484
창밖이 워셕버셕한대,

00:35:37.584 --> 00:35:39.560
보기의 초장에서는
모두 감각적 자극이,

00:35:39.660 --> 00:35:41.150
감각적 자극이 뭡니까?

00:35:41.250 --> 00:35:47.355
(마)에서는 청각이고 벽사창이
어른어른하다 그랬으니까

00:35:47.455 --> 00:35:49.398
청각과 시각입니다.

00:35:49.498 --> 00:35:51.465
착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된다.

00:35:51.565 --> 00:35:54.152

어른어른하니까 뭔가
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니까

00:35:54.252 --> 00:35:56.143
청각이고 시각이었습니다, 적절하죠.

00:35:56.243 --> 00:35:58.842
문제 참 좋네요.

00:35:58.942 --> 00:36:01.285
(마)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

00:36:01.385 --> 00:36:04.681
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
반응하는 화자의 모습,

00:36:04.781 --> 00:36:05.983
즉각적 반응이 뭔데?

00:36:06.083 --> 00:36:10.098
앞에서는 님이신가 워셕버셕
해서 바로 일어났죠.

00:36:10.198 --> 00:36:12.832
바로 반응했습니다.

00:36:12.932 --> 00:36:14.785
3번에서도 뚝딱 나서봤어요.

00:36:14.885 --> 00:36:19.415
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
그려지고 있다, 적절하죠.

00:36:19.515 --> 00:36:20.773
3번 볼까요?

00:36:20.873 --> 00:36:23.336
(마)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

00:36:23.436 --> 00:36:25.472
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
대상이 확인되고 있다.

00:36:25.572 --> 00:36:30.031
낙엽하고 보기에서는 봉황이죠.

00:36:30.131 --> 00:36:34.404
그러니까 대상이 확인되고
있다, 이거 맞죠.

00:36:34.504 --> 00:36:36.181
확인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.

00:36:36.281 --> 00:36:38.137
선생님, 봉황이 현실에 없잖아요?

00:36:38.237 --> 00:36:41.792
아니 봉황이라는 존재 때문에
착각했다는 거 맞잖아요.

00:36:41.892 --> 00:36:46.102

(마)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
대상에 대한 묘사가 있나요?

00:36:46.202 --> 00:36:48.740
낙엽에 대한 묘사가 있나요? 없죠.

00:36:48.840 --> 00:36:52.511
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
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.

00:36:52.611 --> 00:36:54.262
왜 갑자기 비판합니까?

00:36:54.362 --> 00:36:56.453
봉황이라면서요.

00:36:56.553 --> 00:37:00.790
봉황이 날개에 깃을 다듬고
있는 모습이니까 비판이 없죠.

00:37:00.890 --> 00:37:02.025
정답은 4번입니다.

00:37:02.125 --> 00:37:05.371
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는데
답은 깔끔하게 나오네요.

00:37:05.471 --> 00:37:08.856
(마)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
고통을 토로하고 있다.

00:37:08.956 --> 00:37:10.653
뭔데?

00:37:10.753 --> 00:37:13.793
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,
그러니까 내면적 고통이 맞죠.

00:37:13.893 --> 00:37:17.017
보기의 종장에서는 타인의
평가와 조소를 의식한다.

00:37:17.117 --> 00:37:19.792
타인의 평가, 남들이
우일 번 하였다.

00:37:19.892 --> 00:37:20.869
비웃을 뻔 하였다.

00:37:20.969 --> 00:37:22.494
조소, 비웃음이거든요.

00:37:22.594 --> 00:37:25.029
그것을 의식하고 있군.

00:37:25.129 --> 00:37:28.492
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? 이렇게
의식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죠.

00:37:28.592 --> 00:37:31.531
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

00:37:31.631 --> 00:37:35.286
여러분, 여기까지 유형 연습
두 번째까지 마쳤습니다.

00:37:35.386 --> 00:37:39.284
두 번째는 시어에
대한 내용이었습니다.

00:37:39.384 --> 00:37:45.296
가장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상화시키는
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

00:37:45.396 --> 00:37:47.610
여러분, 고생 많이 하셨고요.

00:37:47.710 --> 00:37:51.033
다음 시간에 유형 연습 조금만 더
보고 실전 문제 넘어가겠습니다.

00:37:51.133 --> 00:37:53.004
고생하셨습니다.